

□의복 변천사-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유로운 의식속에 변화하는 옷문화

과거 대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물론 지금과는 판이하게 틀렸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게 될 것이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녔다.

지금 고등학생들의 교복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가슴에는 자랑스럽게 학교배지를 달고 말이다.

1960년대 후반 교복자유화가 되면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옷문화가 형성되었다. 이후 미국으로부터 자유방임주의와 반보수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의식이 변하게 되었다. 과거 보수적이었던 사회풍토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의식이 주체를 이룬 것이다.

70, 80년대 학생들의 옷차림을 살펴보면 지금으로서는 촌스럽다고 할 정도이다. 그 당시 사진은 우리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아무렇게나 입은 상의와 긴 나팔바지 그리고 엉성하게 파마한 머리는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모습이었다.

그때와 비교해지금 대학생들의 옷차림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현란하다 할 수 있다. 저마다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제적인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

문에 과거 엄두도 못냈던 옷들을 이제는 마음껏 입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화된 패션 흐름이 진행됨에 따라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철 노출이 심해 이제는 경찰이 풍기문란죄로 단속하고, 아무런 자각없이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었던 옷이라고 무조건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개성표출된 옷문화도 좋지않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몰개성적인 것이다. 요즘의 우리는 TEX, BOY LONDON, GUESS 등 무조건 외국 수입 브랜드만을 선호하는 모습도 과소비를 부추기는 한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지성인으로서의 올바른 옷문화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인숙(의상)교수는 "학업에 불편을 주는 기능성만 부각된 옷은 별로 안좋다.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기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생활 속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며 "지나치게 의류산업이 발달한 요즘 학생들에게 과소비를 선동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依)'는 단순히 몸만 가리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자기를 부각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대속에서 많은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캠퍼스내에서 사계절동안 우리들의 옷문화는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김동혁 기자〉

□인터뷰-문정동 의류할인매장주인 김재순씨

직선적 소비패턴 지양하라

정상가격 절반이지만 여전히 비싸

문정동 상설할인매장은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메이커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옷입기 추세와 메이커 선호 풍토를 알아 보고자 할인매장 주인 김재순(27)씨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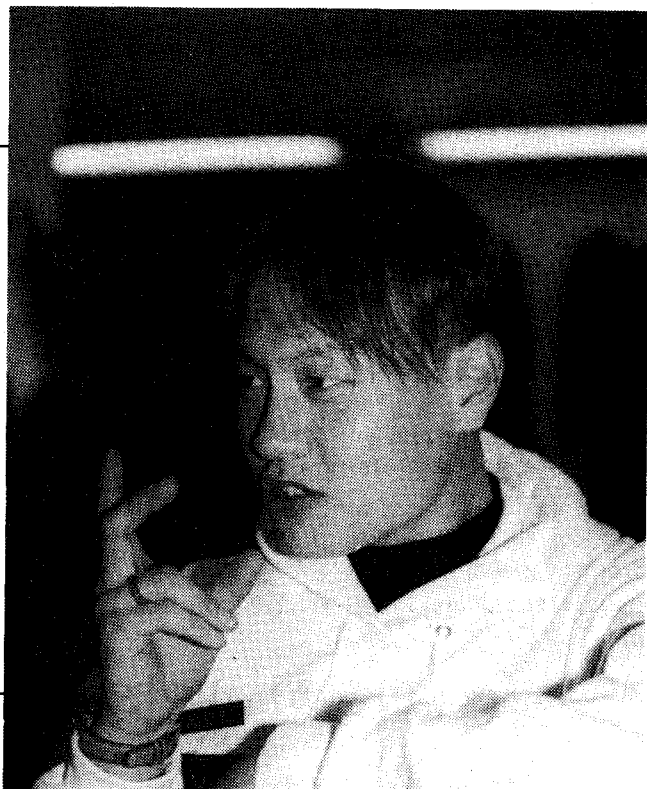
이곳을 주로 찾는 연령층은 어떠한가. 그들의 의복선택기준은 무엇인가.

보통 고등학생이나 20대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요즘 한창 유행

고 싶어하지만 돈이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곳은 정상가에서 거의 반값이니 학생들에게 훨씬 부담이 덜하다.

요즘들어 경기불황이 심한데 이곳은 어떠한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메이커 상품 카드 하나 정도는 구입하니까 카드로 계산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렇게 원하는 옷이 생기면 카드로 쉽게 계산하는 학생들때문인지 경기불황에 대한



"자기에 맞는 스타일 찾는 것이 중요해"

하는 타이트한 스킨슈트나 복고 스타일을 즐겨 찾고 그때그때 유행하는 메이커를 선택한다. 그 나이 또래 손님들의 성향은 매우 직선적이어서 들어오면 어떤 메이커에 어떤 옷이 있다고 물어 보고 없으면 바로 나가버린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행을 쫓는다.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기서는 백화점 같은 정상 매장에서 팔다 남은 상품이나 약간의 하자가 있는 B급 상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 보세 가게보다는 품질이 좀 더 나은데다가 이곳의 모든 옷에는 이름있는 메이커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비싼 옷을 입고 싶어하고 품을 내

영향은 느끼기 어렵다.

세련된 옷 입기를 위한 귀띔 한마디.

요즘은 옷차림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일률적인 유행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다. 주위 사람들의 옷입기를 보고 흉내내는 식의 옷차림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각자에 맞는 옷차림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각있는 옷입기를 말하자면 모두 같은 계열의 색으로 옷을 통일해 입기 보다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색을 잘 어울리게 입어 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파묻히지 않고 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수원 기자〉



대외협력실

본교 신설부서 소개

1. 현황

기초의 홍보실 및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를 총장직속으로 독립, 확대 개편하여 출범된 대외협력실은 본교의 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내의 홍보활동과 대외협력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꾀한 물론 구성원의 고충접수 및 처리, 대동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학발전기금의 활성화에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대외협력실에서 하는 일

홍보 :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내외 이미지 증진

▶대내·외 홍보

- 대학구성원의 활동상황 : 교수 동정·연구실적, 구성원의 미담·화제거리 등
-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본교의 현재 및 미래상 : 정책, 제도, 교육개혁사례 등
- ▶각종 행사주관

대내외협력 업무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내외 각종 활동

- ▶국내 각종기관 자매결연사업 추진
- ▶음부즈맨 제도 운영
- 대학구성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 ▶대동문 협력 및 지원
- 총동문회 주최 각종 행사 지원 : 경희인의 밤 등
- 본교 발전을 위한 동문단체 역량 집결 : 경희 언론인 동우회 등
- 동문단체의 발전을 위한 학교차원의 각종 지원

발전기금조성 및 관리 "대학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발전기금 납부자에 대한 사후관리
- ▶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

개교50주년행사기획 및 추진 "개교 50주년 : 1999" 의미의 극대화

- ▶'개교50주년'을 준비하고 대학구성원 및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3.여러분들을 위해 대외협력실은

-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본교 대학구성원들의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각종 건전행사를 유치하여 대학문화창달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타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자매교류사업을 활성화하여 학문 및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교육·연구의 수월성을 기하겠습니다.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이루겠습니다.
-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을 본교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랑스런 여러분의 '경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대외협력실을 위해 여러분들은

- ▶주위에서 발생하는 본교 구성원들의 미담·화제거리 등을 대외협력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대외협력실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물론, 학교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십시오.
- ▶학교의 정책·교육·행정사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주시고 싶을 때 대외협력실로 달려오십시오. 적극적으로 학교발전에 반영하겠습니다.
- ▶경희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타대학에 비해 본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1원의 가치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본교 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영원한 여러분의 자랑스런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실 : 서울캠퍼스 본관 1층 ☎(02)961-0023~6

대외협력실(홍보 및 대외협력) : 서울캠퍼스 본관 2층 ☎(02)961-0023~6 FAX : 965-0939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발전기금) : 서울캠퍼스 본관 1층 ☎(02)961-0931~2 FAX : 961-0906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실